

마두로, 美법원서 무죄 주장 “나는 대통령…납치당했다”

첫 출정 마약테러 공모등 기소된 4개 혐의 부인…부인도 “난 영부인이다”

삼엄한 경비속 헬기·장갑차 동원해 마두로 부부 구치소서 법원까지 호송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통역을 통해 말하며 마약밀매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남편 옆에 자리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자신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고 말하고 “나는 무죄다. 완전히 결백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녀가 미군에 의해 체포될 당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폴락 변호사는 과거 ‘워키티크스’ 설립자 줄리 언어신자를 변호한 바 있다.

미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kg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이 이뤄진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



5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출석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청사 부근에서 시위대가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유럽 덮친 북극 한파…파리·암스테르담 항공편 취소

도로·철도 마비…난방용 전력수요 급증

5일(현지시간) 북극발 한파와 눈보라가 유럽을 덮치면서 주요 도시의 항공·철도·도로 교통이 큰 차질을 빚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프랑스 파리에서는 폭설로 항공편 수백편이 결항했다.

유럽에서 가장 불비는 공항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은 활주로에 쌓인 눈과 얼음 문제로 이날 정오까지 도착 항공편을 받지 못했다. 스히폴 공항은 이날 취소된 항공편이 약 700편에 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민간항공청도 폭설에 따른 사고를 우려해 사흘 드물 공항과 오를리 공항에 이륙과 착륙 횟수를 15% 줄일 것을 요청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승객들에게 출발 전 항공편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항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 사정도 심각했다. 파리를 둘러싼 일드프랑스 지역 도로 전체에는 시속 80km로 최고 속도 제한이 걸렸고, 차량 정체 구간은 한때 1천km에 달했다. 평소 출퇴근 시간대보다 3배 이상 심



한박눈이 내린 5일(현지시간)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각한 정체였다.

파리 시내 도로도 엉망이 되면서 버스 노선 수십 개도 운행이 취소됐다.

네덜란드 철도사 NS도 암스테르담 인근 지역에서 열차 운행을 전면 중지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파로 난방 수요도 급증했다. 프랑스는 전력 수요가 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스 발전기 가동을 확대했다.

/연합뉴스

미국서 위고비 알약 판매 개시

용량에 따라 월 21만5천~43만2천원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판매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 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이다.

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약 21만5천원)~299달러(약 43만2천원)에 판매된다.

저용량인 15mg과 4mg은 모두 월 149달러이며 4mg 제품은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인상될 예정

이다. 추가로 출시되는 고용량 제품인 9mg과 25mg의 가격은 모두 월 299달러로 책정됐다.

위고비 알약 저용량 제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트럼프알엑스는 이번 달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위고비 알약의 판매 가격(현금 결제)이 시장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보 노디스크, 미국 제약사 일라이리리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라이리리와 노보 노

디스크가 비만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위고비, 일라이리리의 ‘펩바운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그동안 주사제 형태로 시판돼 투약에 불편함이 커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주사제 비만치료제 가격은 월 1천달러가 넘는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 알약 출시로 GLP-1 계열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위고비 알약 출시가 일라이리리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노보 노디스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일본 훈수 서부 시마네현서 규모 6.2 지진

일본 훈수 서부 시마네현에서 6일 오전 10시 18분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지속됐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기상청은 연이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규모 6.2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0km로 추정됐다.

이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돛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불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시마네현 동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과 10시 37분에도 각각 규모 5.1,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방 당국은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을 지키는 사람들
남도
비빔밥
◀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두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